<전환'96 : 화학산업의 의식변혁을 추구하며>

석유화학 가격을 둘러싼 잡음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경기의 불연속성과 함께 수요업종과의 불협화음,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미흡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기분이다.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90년이후 매년 경기순환이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관련기업들도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수급 및 가격예측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마찰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자칫 산업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자리잡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96년들어 호남석유화학을 비롯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등이 EG가격을 둘러싸고 화섬기업과 벌이고 있는 신경전은 도에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는 지경이다. 재고 걱정에 공장가동률을 낮추면서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 현상이나 가격협상이 원만치 않을 경우 공장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결코 옳지못한 발상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막바지 배후를 쳐놓고 협상하겠다는 자세를 그르다 할 수는 없으나 수요선을 협박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물론 화섬기업들의 자세도 옳다고 할 수는 없다. UCC 및 SABIC으로 부터는 780달러에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매예정으로 있으면서 국내기업을 상대로는 700달러이하에 공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리이기 때문이다. 가격협상에 있어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고 변명할 수는 있으나 그 정도의 협박에 당하고 있을 석유화학기업은 없을 것이다.
EG의 원료인 에틸렌 가격이 300달러대에 머물러 있어 원가를 계산해보아도 지나치게 높다는 항변은 그 자체로는 일리가 있는 듯이 보이나 그것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EG가격이 400~500달러로 곤두박질 쳤을 때 과연 화섬기업들은 원료 공급선을 위해 국제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한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화섬경기가 곤두박질,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으니 원료 공급선에서 한발 양보, 가격을 낮추어 공급해준다면 추후 가격폭락시 이를 보충해주겠다는 제의를 해봄이 타당할 것이다.
합성수지 가격마찰은 80년대부터 전례로 내려오는 연례행사라고는 하지만 석유화학 경기사이클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오늘에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느기업 하나 뚜렷하게 합성수지 수급 및 가격을 예측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월매월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에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 내수가격은 변동이 없거나 인하폭이 낮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G 및 합성수지 가격 뿐만 아니라 기타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둘러싼 마찰도 심화되고 있다. 95년 초부터 접착제, 계면활성제 등 Chemicals 관련기업들이 지나친 가격인상에 대응, 업종별로 원료를 공동구매하기로 하고 가격인하를 타진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석유화학 및 수요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수급관계를 조정하기 보다는 배타적 이익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이며, 상대방의 경영악화가 곧 자기사업의 효율화를 가져온다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국제시세와 원가 및 계약가격 사이의 완충점을 찾아 결정되기 보다는 스파트시세에 직접 연동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즉,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정한 가격포뮬러가 존재, 생산원가 및 기존 거래가격, 국제 스파트시세를 연동함으로써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경우 수급 양쪽이 큰 피해를 보지않는 선에서 가격을 절충해 적용하고 있으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상호공존에 바탕,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상대기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한가지는 석유화학기업들이 91년이후 극심한 불황을 타개한다는 명목으로 시작한 석유화학 수급 및 가격담합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점이다. 94년 2/4분기 이후 가격이 급등, 흑자국면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담합을 해체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점이다.

특히, 한국석유화학협회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석유화학제품별 관련기업들을 소집해 담합을 유도,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화학저널 1996/3/11>